

# 丙申年

## 원숭이 이야기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으로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원숭이는 십이지 중 아홉 번째 동물로, 시각은 오후 3시에서 5시, 방향은 서남서, 달(月)은 음력 7월에 해당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십이지에서 잔나비, 즉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자 만능 재주꾼으로 표현된다. 특히 '단장(斷腸·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 장이 끊어져 있었다는 이야기)' 고사가 원숭이에서 유래할 만큼 모성애가 강하다.



그림=김해성 ▲조선대 미술대학 및 대학원 졸업 ▲평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한국미술협회 이사 ▲선과 색 회원

# 뛰어난 재주로 악귀 쫓는 '붉은 원숭이'

잔피·간사함·모성에 ... 인간을 닮아 양면성 지닌 존재

후삼국통일·아관파천 등 국운 좌우한 역사적 사건 많아

중국 명나라 때의 소설 '서유기'는 삼장 법사와 그의 세 제자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불경을 얻기 위해 서역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적인 손오공은 '붉은 원숭이' 형상을 하고 있다. 근두운(筋斗雲)을 타고 다니며 각종 술법을 펼쳐 요괴를 쫓는 재주꾼으로 묘사된다. 이렇듯 동양에서는 원숭이를 '재수 없는 동물'로 기피하면서도 사기(邪氣)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원숭이는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히지만 너무 사람을 많이 닮은 모습, 간사스러운 흉내 등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 띠를 말할 때 '원숭이띠'라고 말하기보다는 '잔나비띠'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같은 속설 때문이다.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지만 불교의 전파와 함께 원숭이는 예술 작품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불교와 관련 해 손오공처럼 스님을 보좌하는 원숭이, 장수를 뜻하는 천도 복숭아를 들고 있는 원숭이, 부귀의 상징으로 포도알과 함께 그려진 원숭이가 많다. 국보 270호인 '정자모자원숭이형연적'은 새끼를 안고 있는 어미 원숭이를 형상화했다. 새끼를 향한 모성애가 가득 느껴지는 이 작품은 고려청자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작품의 하나로 꼽힌다. 원숭이 이야기에서는 원숭이의 생김새나 흉내내기, 재주, 꾀 등을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재주를 과신하거나 잔피를 경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탈춤으로 가면 원숭이의 의미는 달라진다. 송파산대놀이, 강령 탈춤, 봉산 탈춤 등에 등장하는데 사람의 흉내를 적나라하게 넘으로써 인간사회를 풍자와 해학으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역사 속 병신년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려의 후삼국 통일(936년)이다. 신라 말기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가 문란해진 상황에서 태조 왕건은 왕으로 즉위해 고려를 세운다. 935년 통일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고려에 신라를 넘겨주었고 936년 건원이 세운 후백제는 군사 열세와 왕실의 내분으로 자멸했다. 왕건은 지금의 남북으로 갈라져 전까지 약 1000년간 통일 한반도의 기틀을 닦았다. 슬픈 역사도 있다. 1896년 2월11일 조

선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다.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1895)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고종은 내정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지자 1897년 2월25일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해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치고, 황제로 즉위해 독립제국임을 선포했다. 이외에도 지금 남아있는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이 제작되기 시작한 해(1236)이며 1536년에는 성리학자이자 문학을 꽃피웠던 율곡 이이, 송강 정철이 탄생했다. 외국의 경우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知天命的 丙申年 운세



2016년은 영묘한 붉은 빛의 원숭이가, 작렬하는 태양 별을 받아 탐스럽게 익은 과실들을 따먹으며, 윤택하는 판국으로써, 알찬 결실과 풍요로운 수확의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경제적으로는 예견된 압축판 피해 간다면 우려해 왔던 바들이 확실히 불식 되면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주 국가의 진정한 현실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여망이 일대 돌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리라. 국제 사회에서는 장기간의 경제 불황 여파와 각국의 복합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들의 국지전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子 36년생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한다면 분명히 행운이 따른다. 48, 60, 72년생 구태의연함을 자취하고 새로움을 좇아야 활기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84, 96년생 귀인에게 의뢰 한다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타전을 마련할 것이니 주저하지 말라.
- 丑 37, 49년생 잔설이 서려 있는 읍지에 불별이 비추니 온갖 초목이 다투어 피어난다. 61, 73년생 언뜻 보기에는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리가 떠오를 것이니 속히 대응하라. 85년생 시대의 흐름을 재치 있게 파악한다면 대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 寅 38, 50년생 드높은 창공을 향해서 솟구치는 동세이니 활력을 아끼지 말고 본격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74년생 우거진 숲에 나타난 용맹스런 범의 자태이니 가는 길이 위풍당당하고 기세가 넘치리라. 86년생 흑 구름이 사라진 후에 드디어 달이 나타나니 늦게나마 성취하리라.
- 卯 39, 51년생 산토끼가 진귀한 약초를 맛있게 먹고 있는 도랑이니 재물의 운세가 풍부해지면서 식구가 늘어날 것이다. 63, 75년생 목마른 나그네가 맑은 샘물을 찾으니 기쁘기 그지 없겠다. 87년생 생가지도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辰 40, 52년생 푸른 용이 천상에 나타나는 국세이니 큰 인물이나 주변 사람의 인덕을 보게 되리라. 64년생 구름이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변화무쌍할 것이니 그 흐름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리라. 76, 88년생 휘영청 밝은 달이 운치를 더하는구나! 매사를 우회적으로 도모한다면 더욱 순탄하겠다.
- 巳 41, 53, 65년생 장해와 같은 강가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부터 노를 젓는 사공이 보이겠다. 손을 들어 부른다면 배를 돌려 나룻 터에 이르리라. 77년생 남이 자신을 알아주느냐, 마느냐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하다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으면서 기반이 닦아지겠다. 89년생 뱀이 개구리를 낚는 위상이니 분주히 활동한다면 식욕이 넘쳐나리라.
- 午 42년생 금은보화가 깊은 물에 잠겨 있어서 찾을 길이 묘연한데 과격의 독백 속에 암시가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보라. 54, 66년생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는 말의 형국이니 한 해가 평온하고 강복 하리라. 78, 90년생 하늘과 땅의 기운이 탁 트이면서 소원하였던 관계가 회복되며 응축된 에너지를 발산하리라.
- 未 43, 55년생 요행을 바라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으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임을 알라. 67년생 양이 무리와 더불어 목초지를 찾아가는 행로이니 하던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으리라. 79, 91년생 화사한 꽃망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에 취할 수도 있는데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라.
- 申 44, 80년생 묵은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면 이익이 배가 되리라. 56, 68년생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판세로 이끌게 될 것이다. 92년생 만추의 원숭이가 산야에 나와서 과실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에 비유할 만하니 당대자사가 제 때를 만나서 순탄하리라.
- 酉 45, 57, 69년생 잠룡이 큰물을 얻어 승천하는 국량이니 하는 일이 순조롭고 알찰 것이다. 81년생 상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호간의 조화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복 받을 것이다. 93년생 새벽을 알리기 위해 목정을 가다듬고 있는 수탉의 양태이니 매사에 있어서 명분이 합당하고 진취적이었다.
- 戌 46년생 더불어 도모하여야 이루어지는 환경이니 무엇이든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혼자하려 들지 말라. 58, 70년생 충성스런 개가 집안을 지키고 있음에 견줄만하니 뒷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82, 94년생 정성이 지극하다면 천지신명도 감동하여 도와 줄 것이니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일관하라.
- 亥 47, 59년생 산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개천을 이루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만인이 대동 화합하는 대국이니라. 71년생 양지 바른 대지에서 노니는 돼지의 처지이니 제반사가 양호하며 여유마저 있었다. 83, 95년생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모색하고자 하는 일에 그 동안의 공력이 스며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kido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전문회사

차이를 만드는 광고!  
기대를 만드는 광고!  
성공을 만드는 광고!

# 광고의 가능성을 넓히다!

Insight Discovery Group

|주|애드랑 종합광고대행사

Total Marketing Communication T. 062-385-1222